

고려인민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박사 부교수 전 동 철

1. 서 론

고려시기에 진행된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의 호상관계를 밝히는것은 고려인민의 반침략투쟁사와 반봉건투쟁사를 깊이있게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를 바로 인식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로 나서며 고려의 력사가 외래침략자들의 침략과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발전하여왔다는것을 더 잘 리해할수 있다.

반침략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고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말하며 반봉건투쟁은 봉건제도나 봉건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말한다.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섰던 시기 고려인민들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은 서로 다른 형태의 투쟁이었으나 호상관계속에서 진행되었다.

고려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한편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국내의 봉건지배계급,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반봉건투쟁을 완강히 벌리었다.

지난 시기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 고려편(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년), 《조선농민폭동사》 1(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년) 등에서는 고려인민들이 진행한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성과들은 주로 고려시기에 진행된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투쟁과정, 그 의의와 제한성, 교훈 등과 관련된것이며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의 호상관계에 대하여서는 명백히 서술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섰던 시기 고려인민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의 호상관계를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10세기초~14세기말에 거란(료), 녀진, 동진국, 몽골(원), 홍두적, 합단, 왜구 등은 고려를 강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쳐들어왔다. 강대한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슬기롭고 용감한 고려인민들은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민족의 존엄과 용맹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한편 고려인민들은 각지에서 가혹한 봉건적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반동적인 봉건지배계급,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도 힘있게 벌려 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였다.

그러면 고려인민들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는가.

고려시기에 벌어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반침략투쟁과 국내의 통치계급을 반대하는 반봉건투쟁은 무엇보다먼저 선후차의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은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중시되고 선차적인 투쟁으로 간주되었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반침략투쟁시기에는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더 중시되고 여기에 모든 애국적인 사람들이 떨쳐나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인민이 벌인 반침략투쟁을 시기별로 보면 잘 알수 있다.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선후차의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는것은 반거란전쟁시기에 농민폭동을 비롯하여 봉건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반봉건투쟁이 드물게 일어난 사실에서 찾아볼수 있다.

발해유민들을 받아들이고 후기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여 첫 통일국가로 등장한 고려는 세차례에 걸쳐 거란의 대규모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993년 윤10월에는 소손녕을 우두머리로 하는 수십만의 침략군이, 1010년 11월에는 거란왕 성종과 소배압(소손녕의 형)이 거느리는 40만의 대군이, 1018년 12월에는 소배압이 거느리는 10만의 침략군이 고려에 쳐들어왔다.

거란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고려의 군민들은 거란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거란침략군의 3차침입 당시 10만 침략군의 대부분이 전멸되고 살아도망간자가 수천명에 불과하였던 구주대승리는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반거란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속에서도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에서는 993년과 1010년 두차례에 걸친 반거란전쟁시기에 반봉건투쟁과 관련된 자료를 거의나 찾아볼수 없다. 그 후 1018년에 진행된 제3차 반거란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도 그러한 자료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

그 당시 인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로 살길을 잃고 굶주림에 허덕이였다. 대표적으로 1016년 1월 전쟁피해와 흉년으로 포주(의주)를 비롯한 19개의 현과 강남지방의 군, 현들이 기근을 겪었으며 1018년에도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죽었다.*

* 《고려사절요》 권3 현종 7년 1월, 현종 9년 3월

1019년 4월 수안과 신계지방인민들도 가혹한 봉건적착취와 전쟁피해로 식량이 떨어져 굶주렸다. 그러나 인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투쟁을 전개한 자료는 없다.

이것은 당시 인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속에서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려는 거란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을 더 긴박하고 선차적인것으로 간주하고 반침략투쟁에 떨쳐나섰다는것을 보여준다.

11세기 중엽이후 북방녀진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투쟁시기에도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은 적게 일어났다.

1051년 8월이후 고려는 구주와 창주, 동북면의 정주(정평)에 쳐들어온 녀진인들을 격퇴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리였다. 이렇게 북방정세가 긴장한 때인 그 다음해 1052년에 봉건적착취와 억압, 자연재해로 개경의 3만여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기근은 1054년 4월에 동북면에서도 발생하였고 그후 1061년 2월에는 서해도와 경상도의 창녕군을 비롯한 9개 군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한 농민들의 투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11세기말~12세기초 완안부녀진을 구축하기 위한 고려군의 동북지방원정을 전후한 시기에도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송화강류역에서 이웃한 녀진의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고 큰 세력으로 장성한 완안부녀진이 남하하여 두만강을 건너 고려의 동북방으로 쳐들어옴으로써 고려변방의 안전은 크게 위협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고려는 여러차례 걸쳐 주동적인 원정을 단행하였다.

1104년 2월 완안부녀진에 대한 공격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고려는 1107년 12월 17만명의 원정군을 편성하고 정주(정평)이북으로 진격하였다. 원정군은 석성과 이위동에서 완안부녀진군의 집요한 저항을 분쇄하고 진격을 계속하여 두만강북쪽 공협진, 선춘령까지 진출하였다. 그때 고려인민들은 원정군에 망라되거나 군대와 힘을 합쳐 녀진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벌리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억압과 착취가 나아진것이란 없었다.

11세기말~12세기초에 봉건통치배들은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수만명의 중잔치와 허황한 불교행사들을 연이어 벌렸으며 봉건적착취의 강화로 전주, 고주(고원), 정주(정평), 경주관내 19개의 주, 군, 향, 부곡과 서경, 개경 등 많은 지역의 인민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시달렸다.

이 시기에도 역시 대규모의 반봉건투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인민들의 투쟁이 있었다면 봉건통치배들의 수탈에 항의하거나 고향을 떠나는 등 소극적인 투쟁들이었다.

대표적인 실례로 거란의 침략이 박두한 1016년(현종 7년)에 구주(구성)의 군사인 굴선과 영몽 등이 폭동을 일으키려다가 진압당한 사실*¹과 1016년 남계에 《강도》가 많기때문에 《각 주현에서 엄격히 감시》하고 체포할데 대한 령이 내려진 사실*²에서 찾아볼수 있다.

*¹ 《고려사절요》 권3 현종 7년 5월

*² 《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도적

13~14세기 몽골(원)침략자들과 흉두적을 반대하는 투쟁시기에도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13~14세기는 봉건적억압과 착취가 전례없이 강화된 시기였다.

1280년 4월 경상도와 전라도, 1348년에는 서해도와 양광도, 전라도인민들이 봉건적 착취의 강화로 기근에 시달렸으며 1376년 4월 서북지방인민들이 파중한 봉건적착취와 군역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였고 1360년 5월과 1378년 5월, 1381년 4월 개경을 비롯하여 경상, 전라도 등 여러 지역에 기근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농민폭동, 농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벌린 투쟁들은 소규모의 투쟁들이었다.

1286년 2월 강운명 등이 지휘하는 봉기자들이녕월현령을 처단한 사실, 1316년 4월 서해도의 5~6개의 고을주민들이 류리한 사실, 1339년 8월 조적, 흥빈 등이 왕궁을 습격하다가 실패한 사실, 1361년 5월 서북면에서 농민들의 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진 사실, 1363년 6월 개경동쪽교외에 주둔하고있던 지방군이 파중한 군역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린 사실, 1383년 최하충신본인 재인, 화척 등이 평창, 영주, 순흥 등지에서 투쟁을 벌린 사실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적극화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적으로 일어난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인민들의 애국심과 관련되어있었다. 당시 인민들은 외적의 침입으로 하여 자기들이 나서자란 강도가 외적에게 짓밟히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선후차의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는것은 다음의 역사적사실에서 더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고려사》에는 1232년 《몽골의 대군이 침입해오니 왕이 3군을 보내어 방어하였다. 그때 마산의 초적(폭동군－필자)두령이 자진하여 …최이를 찾아와서 〈청컨대 정병 5 000명을 가지고 싸움을 돕게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최이가 대단히 기뻐하면서 심히 후하게 상을 주고 용관(戎冠－군복)과 금환자(金環子－금고리)를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게 하면서 위로하고 무마하였다.

최이는 또한 광주 관악산의 〈초적〉의 집결지에 사람을 보내어 〈적(농민군－필자)〉의 우두머리 5명과 정예군사 50명을 설복하여 데리고와서 후하게 상을 주고 우군에 편입시켰다. 충주노군(奴軍－노비들로 무어진 부대)의 두령인 령사 지광수와 중 우본이 왔으므로 표창하고 상을 주었다. 지광수에게는 교위를 주고 우본에게는 충주 대원사의 사주(절의 우두머리－인용자)로 삼고 삼중벼슬을 주었다.》*라고 써여있다.

* 《고려사》 권129 렬전42 최충헌 반역3

5 000명으로 구성된 마산농민군과 5명의 두령이 거느리는 관악산농민군, 충주의 노비폭동군은 몽골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고려가 3군을 편성할 때 정부군에 인입된 부대였다. 《고려사》의 편찬자들은 마산농민폭동군을 제외하고 기타 농민군이 봉건정부가 파견한 안무별감의 무마책동에 의하여 개경에 찾아와 반침략투쟁에 참가한것으로 써놓았으나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것이다. 그들은 안남의 백강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몽골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이런 식으로 외곡서술하였다.*

*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 19년 7월 임오

이 자료는 반봉건투쟁을 벌리던 마산농민군과 관악산농민군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주동적으로 정부군에 합류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반침략투쟁이 반봉건투쟁보다 선차적으로 벌려야 할 투쟁이라는것을 농민군이 인식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왜 고려시기 반침략투쟁이 반봉건투쟁보다 선차적인 투쟁으로 진행되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후반기에 봉건적인 압박과 착취가 더욱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농민전쟁, 농민폭동이 일어나지 않은 주되는 원인을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섰던 사정과 결부시켜보아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6권 427페이지)

고려시기에 봉건적인 압박과 착취가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나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섰던 시기에는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이나 농민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주되는 원인은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국내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전면에 나섰기때문이었다.

외래침략을 막아내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은 외적의 발굽밑에 짓밟히게 되며 인민들은 계급적인 억압과 착취뿐 아니라 민족적인 압박과 멸시까지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섰던 시기 외적을 막아내기 위한 반침략투쟁은 봉건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보다 더 사활적인 요구로, 당면한 과업으로 나섰기때문에 반침략투쟁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보다 선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로부터 선후차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적인민들의 비상한 애국심과도 직결되어있었다.

때문에 고려인민들은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싸움에 떨쳐나 자기들이 나서자란 정은 고향을 지켜 피어린 항전을 벌려 침략자들을 쳐물리쳤다.

국내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섰던 농민폭동군들도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보고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반침략투쟁에 합세하였던것이다.

외적의 침략이 없던 시기에는 양인과 노비들을 비롯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도처에서 대소규모의 폭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봉건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9성 지역을 개척하여 동북지방의 정세를 안정시킨 12세기초부터 13세기초인 1216년 7월까지 근 한세기동안 고려는 외적의 위협은 받았으나 직접적인 침략은 거의나 받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인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122년 인종왕의 집권이후 봉건통치배들속에서는 권력싸움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개경의 집권세력들이 사대할것을 강박하는 금나라에 굴복하자 서경인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1년 3개월에 걸쳐 격렬한 싸움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격렬하게 벌어진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은 이전시기에는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1163-1164년 경상북도 예천을 비롯한 남도지방과 이천(안협), 평강 등지에서 큰 규모의 농민폭동이 일어난데* 이어 12세기 후반기에는 무신집권자들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전국적농민전쟁이 일어났다.

*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16년 5월

1174년 9월 조위총의 반란을 계기로 오늘의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의 넓은 지역에서 서북지방농민군의 투쟁이 벌어졌다. 1176년초에는 서남지방에서도 농민폭동이 폭발하여 1180년대까지 무신집권자들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였다. 그리고 12세기 90년대에는 동남지방에서 큰 규모의 농민군이 활동하게 되면서 농민전쟁은 보다 양양되었다.

그러나 몽골(원), 왜구를 비롯한 외래침략이 끊임없이 벌어지던 시기에는 12세기와 같은 농민전쟁, 농민폭동과 같은 대규모의 반봉건투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인민들은 악질관료들과 상전들을 처단하는 등 소규모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섰던 시기에는 반침략투쟁이 선차적인 투쟁으로 나섰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려인민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은 다음으로 호상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고려인민들이 반침략반봉건투쟁을 결합시켜 벌린것은 고려의 봉건통치층이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생각을 하지 않고 전란속에서도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한데 있었다.

고려 후반기인 1216년에 거란침략자들이 또다시 의주, 창주, 삭주를 거쳐 운중도로 침입하였다.*¹ 거란침략군은 1217년 1월에는 안서도호부(해주)에, 2월에는 정주(정평), 4월에는 5 000명의 적들이 금교역(금천)에, 5월에는 동주(철원)지역에까지 쳐들어왔다.*² 거기에다가 10월에는 녀진반란군인 황기자군까지 쳐들어왔다.

*¹ 《고려사》 권22 고종 3년 8월

*² 《고려사》 권22 고종 4년 4월, 5월

바로 이러한 때인 1217년 1월 진위현(경기도 평택군)의 령동정 리장대와 직장동정 리달필 등은 지방도호들을 투쟁에 인입하여 지방군인들과 농민들을 폭동에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항전을 적극 벌릴 대신 일신의 부귀영화에만 눈이 어두워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한데 있었다. 특히 최충헌과 그의 아들 최이는 거란침략군이 쳐들어오자 수많은 가병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들을 반침략투쟁에 내보내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변을 호위하는데만 급급하였기때문이었다.*

*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정월

폭동군은 악질관료들을 처단한 후 관청을 점령하였으며 창고를 열어 인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었다. 그리하여 농촌의 굶주리는 농민들이 수많이 모여와서 투쟁대오에 가담하였으며 투쟁대오는 어려운 생활처지에 있던 양민농민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들은 고을에 격문을 보내어 진위현농민군이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군대라는 뜻에서 《정국병마》라고 하였으며 정의를 위하여 일어난 군대라는 의미에서 《의병》이라고도 하였다. 이들이 자기들을 의병이라고 부른것은 정의를 위하여 일어난 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그보다는 거란의 침입으로 국토가 외적에게 짓밟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되고있었으므로 국내의 봉건통치배들과 함께 외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것이였다.

진위현농민군이 자기들을 의병이라고 부른것은 우리 나라의 옛 자료에서 맨처음으로 보이는 의병기록이다.

1231년 충주의 노군잡류별초군의 투쟁도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결합되어 진행된것이였다.

1231년 8~9월경에 몽골침략자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충주의 《노군적피》(노군폭동지휘자-필자)를 비롯한 수많은 충주노군들은 3군으로 편성된 정부군에 합류되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이해 11월 충주가 몽골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봉건통치배들은 놈들의 침략을 막을 생각보다 저들의 목숨만 구원하려고 도주하였다. 그러나 노비들과 하층신분의 인민들로 조직된 노군잡류별초군만은 성에 남아 적들과 결사전을 벌려 끝끝내 침략자들을 쳐물리쳤다. 적들이 쫓겨간 후 고을에 돌아온 량반관리들은 몽골군이 략탈해간 관청의 은그릇들을 노군이 가졌다고 하면서 노군의 지휘자들을 탄압하려고 책동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이러한 행위는 반침략투쟁에서 인민들이 논 역할에 대한 배신이였으며 피압박인민들을 천시하던 계급적본성으로부터 나온것이였다. 더우기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노군지휘자들을 탄압할 음모를 꾸민것은 반침략투쟁에서의 성과를 가로채는것과 동시에 그들의 단합된 힘이 앞으로 저들의 통치에 위협을 조성할수 있다는데로부터 그것을 미리 없애려는 목적을 추구한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 격분한 노군지휘자들은 《몽골군이 왔을 때는 모두 지키지 않고 도망하더니 몽골군이 략탈한것을 도리어 우리들에게 뒤집어씌워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먼저 손을 쓰지 않겠는

가.》라고 하면서 소라를 불어 노군들을 한곳에 모이게 한 후 자기들을 살해하려고 한 주모자의 집을 습격하여 불살라버렸으며 《호강하게 살던자로서 본래부터 원쑤로 대하던자들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처단》*하였다.

*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19년 정월

충주노군들의 투쟁에 질겁한 봉건통치배들은 3군을 파견하여 폭동군을 《토벌》하였는데 그때 대오안에 변절자가 생겨 지휘자인 중 우본은 살해되고 용감하고 굳센 사람들은 모두 피신하여 본래 활동하던 산골로 다시 들어가 봉건통치배들과 몽골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벌렸다.*

그밖에도 1232년 7월 개경의 관노들과 농민들이 관노출신(어사대의 조예로 있었음.) 리통의 지휘밑에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사실, 1237년 전라도의 담양에서 폭동을 일으킨 리연년이 지난 시기 구주성싸움에서 몽골침략군을 격파하는데서 공로를 세운 김경손을 도통으로 삼고 투쟁을 벌리려고 한 사실 등을 들수 있다.

1270년 6월 강화도에서 타오른 삼별초의 항전은 반봉건투쟁과 반침략투쟁이 결합되어 벌어진 사실을 뚜렷이 보여준다. 당시 봉건통치배들은 몽골침략자들과 타협하고 결탁하면서 당시 수도였던 강화도로부터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면서 삼별초의 해산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삼별초군의 장군 배중손과 로영희, 김통정 등의 지휘밑에 1270년 6월 1일 강화도에서 반침략반봉건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세개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며 별초란 특별히 조직한 군대라는 뜻이다.

* 《고려사》 권 26 원종 11년 5월 계축, 6월 기사

강화도를 완전히 장악한 삼별초군은 왕족인 승화후 온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몽골(원)침략자들과 결탁한 국왕 원종을 비롯한 본래의 봉건정부를 부정하였다. 항전군은 투쟁에 결기한지 3일만인 1270년 6월 3일 강화도를 떠나 진도로 향하였다. 항전군은 조선남해로 가는 과정에 착량, 영흥도 등 여러 섬들과 해안지역의 인민들을 투쟁에 결기시켰다. 항전군은 그해 8월 19일 진도에 도착하여 투쟁을 준비하였으며 1271년에는 장흥부 조양현, 합포, 김해 등지를 공격하였다. 5월에 삼별초군은 판군과 몽골연합군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배중손이 희생된 후 김통정의 지휘밑에 탐라(제주도)로 투쟁기지를 옮기고 그 다음해까지 투쟁을 계속하였다. 삼별초군은 1273년 1월에 락안(보성), 합포를 공격하여 전함 32척을 소각하고 몽골침략군을 소멸하였으며 4월에는 160척의 배를 타고 제주도에 기어든 1만여명의 《토벌군》과 용감히 싸웠다.*

* 《고려사》 권103 렬전 리자성, 김경손, 배중손

이처럼 삼별초군의 항전은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결합되어 벌어진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항전은 몽골침략자들과 타협하는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고려인민은 결코 몽골침략자들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견결한 립장을 보여주었다. 또한 수많은 함선을 동원하여 일본을 침략하고 남송을 점령하려던 몽골의 침략기도에 타격을 주었다. 이때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의 결합을 보면 먼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반침략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반봉건투쟁으로 이어지는 투쟁과 국내의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반침략투쟁으로 결합되는 두가지 양상을 띠고 나타났다.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결합되어 진행되었으나 그 투쟁대오안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넘을수 없는 신분적갈등과 투쟁목적과 대상에 대한 불일치로부터 오는 모순과 대립은 절대로 해소되거나 결합될수 없었다.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삼별초군의 항전시에도 배중손, 김통정을 비롯한 지휘층들과 폭동의 주력인 량인, 노비들사이에는 계급적으로 대립되었을것이며 홍두적, 왜구를 물리치는 투쟁때에도 정부군을 지휘한 관료들과 군사들사이에도 이러한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였을것으로 인정된다.

반침략투쟁과 농민폭동에 끼여든 봉건관료들은 고려봉건왕권과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더 큰 권력과 재부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있었지만 피착취계급신분의 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계급적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날것을 지향하였다.

고려인민들이 반침략투쟁에 먼저 떨쳐나선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애국심을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봉건적중앙집권력이 강하였던 고려전반기에 애국적인민들은 군대에 입대하거나 군사들과 힘을 합쳐 외적을 쳐물리쳤으며 봉건적중앙집권력이 약화되었던 고려후반기에도 인민들은 몽골(원)과 홍두적, 왜구 등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외적의 침략을 쳐물리치는 투쟁에 자발적으로 떨쳐나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냈다.

이처럼 인민들의 애국적이고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고려의 자주권은 고수되었으며 사회발전이 촉진되었다.

3. 결론

제반 역사적사실은 고려인민들이 진행한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은 선후차적인 관계와 결합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고려시기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선후차적인 관계와 결합관계를 가지고 진행될수 있는것은 고려인민들의 의식적이고 주동적인 역할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반침략투쟁이 진행될 때마다 고려인민들은 봉건적억압과 착취속에서도 반침략투쟁에 결기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이 결합되어 벌어진것은 이 시기 몽골(원), 홍두적, 합단, 왜구 등 침략자들이 남과 북에서 끊임없이 쳐들어왔으며 거기에다가 봉건통치배들이 침략자들을 쳐물리칠 생각보다 억압과 착취를 강화한 사정과 관련되었다. 반침략반봉건투쟁이 결합되어 벌어질 때에도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량인들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이 서있었으며 그들은 외래침략자들만이 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에 벌려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이렇듯 고려인민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반침략투쟁과 봉건통치배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반봉건투쟁을 힘있게 벌려 조선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기였다.

우리는 앞으로 고려시기에 진행된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과의 호상관계와 관련한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운 고려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의 역사를 깊이있게 해명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반침략투쟁, 홍두적, 합단